한국환경공단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사무직

<열정과 끈기의 마라토너 하니, OOO!>

재학시절 저의 별명은 열정과 끈기의 하니였습니다. 매 달을 시험기간처럼 지내며 그 누구

보다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왕복 3시간 반이 넘는 거리와 총 8번의 환승에도 지각, 결석 한 번 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계방학 동안에도 100시간 자격증 강의를 듣는 등 성실하게 임했고 3.78에서 4.32로 크게 성적향상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과 3등으로 성적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주었고 그 무엇도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물은 99도까지 온도를 열심히 올려도 1도를 올리지 못하면 끓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야 다음 문이 열립니다. 99도의 열정과 1도의 끈기로 한국환경공단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강점은 열정과 추진력입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인사관리 프로젝트를 하였는데 저희 팀은 팀원도 회의에 모이지않고 진행이 더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팀원모두가 참여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하였습니다. 팀원들에게 항상 물어보며 일의 진행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 주에는 결과물을 확인하며 서로 격려를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팀은 유일하게 프로젝트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점수또한 A+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저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제가 연락을하고 communication을 시도함에 있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열심히지?'라는 생각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몰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도전하기에 주변인에게 獨不將軍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꾸준한 의사소통과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서울시관리공단에 20년 넘게 재직중이십니다. 삼촌은 언제나 청렴결백하고 어른을 곤경하며,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본보기가 되어주십니다. 삼촌의 공직자로서의 윤리적인 모습과 자부심을 보며 저 또한 공단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인간의조건이란 프로그램을 자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물없이 살기, 쓰레기없이 살기 등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단지 오락프로그램이지만 이를 통해 하룻동안 2L이상을 흘려버리는 우리자신을 볼 수 있었고,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잔으로인해 발생하는 일회용컵과 마개, 빨대, 홀더를 보며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고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자연보호에 앞장 서는 녹색환경창조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문을 두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인생에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열정과 끈기로 임할 것 입니다. 현재 6월 컴활2급 취득예정에 있으며, 엑세스와 프로시저의 교육으로 1급시험을 응시할 것 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맞는 인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열정을 보일것 입니다!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을 위해 열정적으로 주변인에게 권유할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노력과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의 활동을 SNS등을 통해 전파하며 제가 다니는 한국환경공단의 자부심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